

戰略輸出產業의 發展方向



院長 朴 聖 相

〈韓國產業技術研究院〉

오늘날 우리나라 經濟는 대단히 중요한 轉換期에 처해 있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우리 經濟의 持續的 高度成長은 그 限界點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과거 成功的이었던 開發戰略마저도 올바른 再調整이 없이는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維持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1人當 國民所得은 約 1,600弗로서 中進國 가운데 上位圈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產業構造·輸出能力 특히 人的要素의 供給構成으로 보아 우리는 좀더 노력만 하면 先進國隊列에 參與할 수 있는 여러가지 與件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轉換期에 처해 있는 이 時點에 있어서 우리 經濟의 開發戰略중 가장 중요한 命題는 어떻게 하면 우리 經濟가 第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先進國水準의 經濟能力 및 產業能力을 構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先進國을 向한 우리 經濟의 座標는 國民 各계各층에 이르기까지 마치 하나의 宗教처럼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期待와 전망은 우리 社會 구석구석에서 眞요한 노력의 형태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眞념은 70年代 末期의 開發戰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60年代 初부터 시작된 高度成長 때문에 야기된 結果로 70年代 後半의 經濟戰略수립자들은 80年代의 經濟政策은 “產業構造의 高度化”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과거 20年 동안 輕工業위주의 工業發展 및 農產物중대에 力點을 둔 對外 指向的 輸出促進戰略을 취해 온 結果 經濟의 對外依存度가 높아졌고 특히 完製品 生産을 위한 素材와 部品 및 資本財의 輸入을 계속 增大시킬 수 밖에 없다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結果를 가져왔다는 반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우리 經濟는 經濟成長의 과정에서 輸出이 增加되는 속도에 비해서 對外依存度도 增加하고 輸入도 늘어가는 취약성을 노출시키게 된 것이다. 이것이 產業構造가 매우 취약하다는 특징으로 表現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產業의 迂廻生産 정도가 日本 產業의 迂廻生産 정도의 半도 안되는 현실을 낳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日本으로부터의 값싼 中間財, 素材 및 部品과 資本財 輸入 때문에 우리의 輸

出增加速度보다 輸入增加속도가 더 빨랐으며 결과적으로 外債累積이라는 어려운課題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産業構造를 시정하고 80年代의 先進國圈을 향한 持續的인 經濟成長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하여 政府는 우리 國土 위에 機械産業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型的 重化學工業을 育成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決定으로 70年代末 3年 동안의 우리 經濟는 同重化學工業에의 막대한 投資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重化學工業에의 막대한 投資는 불행하게도 역사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時點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重化學投資가 대략 마무리지어진 時期가 第2次 油價波動에 의한 세계적인 經濟의 大混亂期였으며 둘째 油價波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목적으로 한 先進諸國들의 安定政策으로 말미암은 世界的인 長期不況의 時發點과도 일치하였고 셋째, 그 時期에 우리나라는 우리 經濟自體의 모순이 노출되고 매마침 政治·社會的 不安이 가세하여 景氣가 침체에 빠져드는 時期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우리 經濟가 취해 온 거의 모든 經濟戰略 및 政策에 대한 심각한 反省論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反省論으로 인해 重化學工業에 대한 過剩投資가 國民의 혐오감을 고조시키는 일면도 보이게 되었다.

현재의 이 時點에서 國民各自가 느끼고 있는 最大의 課題는 우리 經濟는 앞으로 어떻게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이의 解決을 위해 全國民의 지혜를 총동원해야 할 立場에 처해 있음을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불매 이 轉換期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과거의 外形成長爲主에서 脫皮하고 內實을 期하는 方法밖에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過去의 外形成長은 技術的으로 生産하기 어려운 部品을 輸入해서 組立하던 産業을 中心으로 發展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技術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部品을 國內生産하고 素材를 輸入代替, 國産化함으로써 輸入需要를 줄이고 産業의 深化에 따라 原鑛石을 導入하여 素材를 만들고 이 素材를 가지고 部品을 만들어 完製品을 組立하여 內需에 充當하고 輸出도 增加시키는 方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産業의 改編方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賦存資源이 不足한 우리나라는 必要한 原資材를 輸入하기 위한 外貨를 獲得하기 위해서도 輸出의 持續的 成長에 의지해야 하므로 새로운 輸出品을 開發하지 않고서는 아니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輕工業爲主의 過去 輸出品의 輸出伸張만으로는 벽에 부딪칠 可能性이 있다. 왜냐하면 後發開途國이 우리의 輸出市場에 浸入해 들어올 可能性이 충분히 있가 때문이다. 따라서 新生工業國으로서의 우리나라의 産業은 技術的으로 新規輸出品目을 가능한 것부터 生産을 시작하여 輸出品化하지 않으면 아니될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部品을 開發하여 日本과 같이 部品輸出의 길을 터야 할 것이고 素材를 開發하여 素材輸出을 增加시켜야 할 것임은 물론 日本의 輸出戰略을 본받아 技術的으로 비교적 容易하게 生産possible한 耐久消費材輸出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日本은 西歐 先進工業國들이 高度의 技術이 필요한 産業用 機器와 戰略武器開發에 熱中하는 동안 自動車, 오토바이, TV, 冷蔵庫, 電子製品 등 世界의 消費者가 大量으로 必要로 하는 耐久消費財의 品質改良, 高度化, 低價品技術開發에 專念함으로써 大量消費製品의 國際競爭力에서 優位를 확보하여 世界의 耐久消費財市場을 석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日本이 耐久消費財 경쟁에 있어서 世界市場에서 優位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戰後 출근 西歐技術의 導入과 모방에 그친 Video와 로보트, 그리고 NC 工作機械製作 등 첨단技術産業에서도 이제는 獨自的 技術向上에 成功하여 世界市場에서 優位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日本의 工業戰略을 自國의 技術水準으로는 西歐工業과 대치하지 못한다는 制約을 깨닫고 先進工業國이 高級技術開發에 專念하는 동안 技術적으로 비교적 손쉬운 耐久消費財生産에 對한 技術發展에 置重한 것은 賢明한 선택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값싸고 品質좋은 既存製品인 耐久消費財에 置重한 技術開發이 大量으로 必要로 하는 耐久消費財 生産上의 大規模 組立工程에서 西歐의 製品을 壓倒하게 된 것이 오늘의 日本의 輸出競爭力을 뒷받침한 根本戰略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값싸고 良質의 풍부한 勞動力을 이용하여 日本과 같이 耐久消費財 生産戰略으로 新規輸出品開發에 力點을 둘 必要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西歐의 先進工業國과 對抗할 産業에서는 比較優位를 갖게 될 可能性은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日本이 추진한 大量消費에 必要한 耐久消費財分野에 대한 日本의 1960年代의 工業戰略이 우리의 技術水準에 맞는 發展戰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自動車の 例를 든다면 日本은 1965년까지 輸出은 불과 3億餘弗에 그치고 있었으나 오늘의 日本의 乘用自動車の 輸出額은 單一品目으로 150億弗에 달하고 自動車部品과 各種 車량을 합하면 350億弗의 輸出高를 기록하고 있다. 自動車는 世界의 各家庭이 一台씩은 갖고 싶어하는 大量需要 耐久消費財에 속한다. TV 역시 各家庭에서 一台씩은 갖고자 하는 것이 世界的 추세라 할 수 있다. 현재 Video는 폭발적인 需要에 生産이 뒤따르지 못하는 不況을 모르는 新製品이다. 전축, 冷蔵庫, Radio, Tape Recorder, Audio 등도 또한 같다. 포켓트用 電子計算器는 世界人口가 자기 하나씩 갖고자 하는 物件이다.

이와같은 大量需要品目を 값싸고 良質로만 만들게 되면 輸出은 다시금 옛날의 伸張勢를 되찾게 될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製品들이 國際競爭力을 갖고 日本製品과 競爭하기 위해서는 日本에서 輸入한 部品을 가지고 組立해서 生産해 내는 것으로는 도저히 不可能하다. 部品の 國產化와 質의 改善를 통하여 값싸고 質좋은 部品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技術發展의 途徑이 되어 값싸고 良質의 部品으로 組立된 完製品이 또한 國際競爭力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部品工業의 育成을 통한 耐久消費財産業의 發展만이 우리의 産業을 高度化하고 同時에 輸出을 다시금 伸張시키는 方策이며 戰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다.